

VOL.2

건강 + 행복

Health+Happiness | 2026.06. June

여름호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VOL.2

건강 + 행복

Health+Happiness | 2026.06. June

발행인 이경균
편집장 박정은
발행처 창원시설공단
기획 및 편집 디지털기획팀
발행일 2026년 6월

사보는 창원시설공단을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창원시설공단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a

공단, 공단인

공감 소통 · 공감

공유 공약 & NEWS 건강

04 명시 산책

그 강에 가고 싶다

05 특집

AI 자율드론이 바꾸는 공단 시설관리의 미래

06 공단 풍향계

배움과 체험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성장 플랫폼

08 계절 나그네

창원에서 만나는 시원한 여행

10 공단 포커스

제2회 커플캐처 in 창원

11 자랑스러운 공단

공단인들의 도전, 값진 결실로 이어지다

12 공단 화제

맑은 바다 만들기 캠페인

14 안전한 공단

파크골프 초보자 안전교육 운영

15 시설 & 이슈

대산면파크골프장,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 획득

16 청소년마당

유스메이커(YOUTH MAKER),
AI로 만드는 따뜻한 변화

19 문화 공감 - Book

불편한 편의점

18 함께하는 공단

기술로 전한 따뜻한 나눔

20 안전 플러스

여름철 꼭 알아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

24 따뜻한 공단

21 Food story

물놀이 전후, 무엇을 먹어야 할까?

26 고객의 칭찬

22 공단 뉴스라이프

그 강에 가고 싶다

김 용 택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간다
 인자는 나도
 애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옷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 그저 물을 볼 일ियो
 가만가만 다가가서 물 깊이 산을 볼 일이다
 무엇이 바쁜가
 이만큼 살아서 마주할 산이 거기 늘 앉아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거기 물이 흐른다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쉬었다가 저 혼자 가고
 강물도 저 혼자 돌아간다

그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
 그 강에 가고 싶다

김용택(1948~)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 출생
- * 2012년 제7회 운동주 문학대상 수상
- * 2002년 제11회 소총사선문화상
- * 1997년 제12회 소월시문학상
- * 1986년 제6회 김수영문학상
- *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 <섬진강>, <맑은 날>, <울고 들어온 너에게> 등 다수

“하늘에서 살피는 안전”

AI 자율드론이 바꾸는 공단 시설관리의 미래



우리 공단이 AI 기반 자율드론 시설물 점검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하늘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창원NC파크에서 실시된 시범 운영은 공단이 추진 중인 ‘자율드론 시설물 점검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벽 고층부와 지붕 구조물, 조명탑, 관람석 상부 등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드론 촬영이 이뤄졌다.

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정밀하게

자율비행 드론은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시설물을 촬영하며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균열이나 부식, 구조물 이상 여부 등을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 점검은 육안 확인과 현장 접근에 의존하

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드론을 활용하면 고소작업이나 위험구역 접근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설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점검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로

우리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 단위 촬영 기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촬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시설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적인 점검 결과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시설물 상태를 장기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도 가능해진다. 단순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설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청소년의 오늘을 응원하다”

배움과 체험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성장 플랫폼

우리 공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친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진로 탐색부터 가족 체험, 자연 속 활동까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늘푸른전당은 지난 5월 「진로 ON, 꿈을 찾다」 청소년 직업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에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장이 됐다.



참여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누리x줌마렐라 찾아가는 잼월드」를 운영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은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진해청소년야영장은 「자연에서 가족애 쏙 쏙 키워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숲 체험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경험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에서 만나는 시원한 여행

공단 계절 나그네 두 번째 여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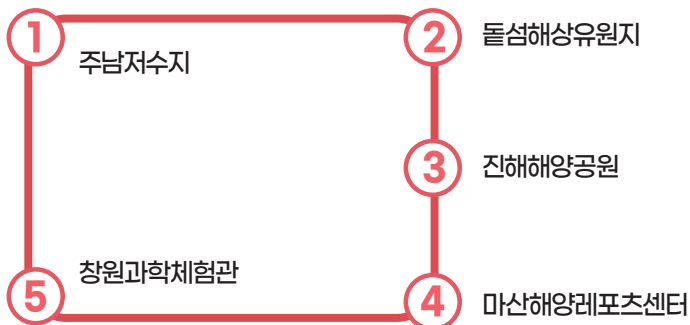
여름이 머무는 곳

초록빛 자연과 푸른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

멀리 떠나지 않아도 창원 곳곳에는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숨어 있다.

시원한 바람을 따라 걷는 생태길부터 바다를 품은 섬 여행,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 공간까지.

울여름 일상에 작은 쉼표를 더해줄 창원의 매력적인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투어관광지 소개



주남저수지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일원

주변볼거리 : 람사르문화관, 주남환경학교, 창원국제사격장

주남저수지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창원의 대표 생태관광지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과 넓게 펼쳐진 수면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산책로와 전망대가 잘 조성돼 있어 아이들은 자연을 배우고, 부모는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돌섬해상유원지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돌섬길 1

주변볼거리 : 창동예술촌, 마산해양신도시, 마산해양레포츠센터

돌섬해상유원지는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원의 대표 해양 관광지다. 섬 곳곳에 조성된 산책길과 포토존, 휴식 공간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일상 속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다.

진해해양공원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주변볼거리 : 해군사관학교, 진해해양솔라파크, 진해루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창원의 대표 해양관광지다. 음지교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해안 산책로는 여름철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진해 바다만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545

주변볼거리 : 로봇랜드 해양공원, 저도 콰이강의 다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요트와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직접 바다 위를 누비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여름철 체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특별한 여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창원과학체험관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72번길 16

주변볼거리 : 창원축구센터, 성산아트홀, 용지문화공원

창원과학체험관은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이다. 다양한 전시물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은 놀이처럼 과학을 배우고, 부모는 함께 체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청춘을 잇고 지역을 연결하다 ... 제2회 커플캐처 in 창원 성향



청년 소통·만남 지원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교류의 장 마련



우리 공단이 지역 청년들의 건강한 만남과 소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제2회 커플캐처 in 창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월 24일 진해청소녀야영장과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창원특례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20~40대 미혼 남녀 2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1 매칭토크와 레크리에이션, 요트체험, 캠핑존 대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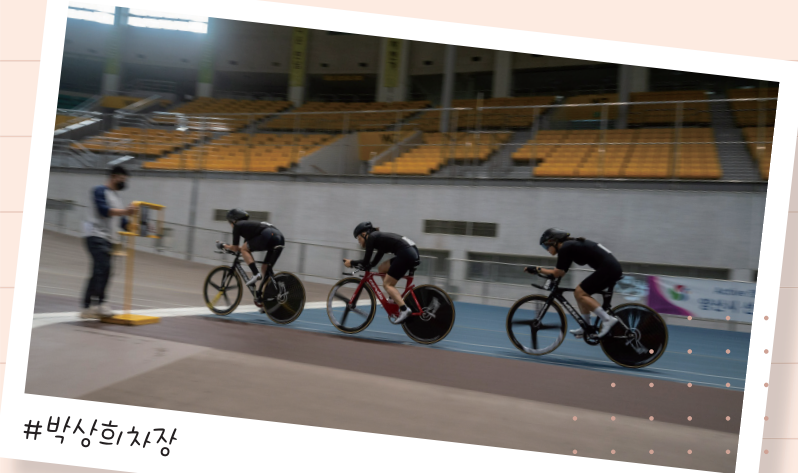
「커플캐처 in 창원」은 단순한 만남 행사를 넘어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청년 소통·만남 지원 프로젝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과 청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노력으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하고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두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체험과 대화를 함께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최종 6쌍의 커플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KBS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만남 문화와 지자체 차원의 청년 지원 사례를 촬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친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훈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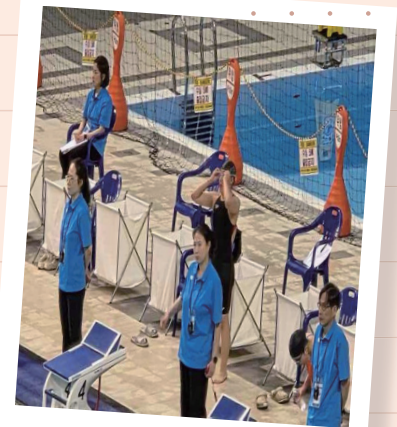
#박상희차장

공단인들의 도전, **값진 결실**로 이어지다

☑ 도민체전·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잇단 입상 ... 스포츠로 빛난 공단인들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공단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성산스포츠센터 박상희 차장은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자전거 종목에 출전해 여자 일반부 500m 독주 2위와 단체 2km 1위를 기록하며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다. 평소 꾸준한 훈련과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창원시 대표 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에 기여하며 공단인의 자력을 보여줬다.

진해여좌국민체육센터 김창훈 계장 역시 경상남도민체육대회 보디빌딩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공단 소속 선수로 출전해 값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 발전과 공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같은 팀 고수린 대리는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수영 종목에 창원시 대표선수로 출전해 계영 400m 1위, 자유형 50m 2위, 자유형 100m 2위를 기록하며 창원시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꾸준한 훈련과 성실한 자세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공단 체육인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전거와 보디빌딩,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한 공단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꾸준한 자기계발과 훈련을 병행하며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이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긍정적인 에너지 확산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낸 직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수린대리



#이종덕과장



바다를 위한 작은 실천, 큰 변화로 이어지다

민·관·군·기업 함께한 「맑은 바다 만들기 캠페인」 성료

우리 공단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진해해양공원 일원에서 「맑은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경상남도교육청, 진해경찰서, 해군교육사령부,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해안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단이 202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 환경보호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진해해양공원은 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창원의 대표 해양관광지인 만큼,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친환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깨끗한 바다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 확대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정화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며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작은 실천으로 지킨 바다, 함께해서 더 뜻깊었던 하루

진해해양공원에서 만난
자연의 소중함과 봉사의 즐거움

토요코인 창원 석다래



지난 5월 29일, 창원시설공단이 주최한 「진해해양공원 맑은 바다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회사 직원들과 나를 포함해 총 8명이 함께했으며, 모두 휴일임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처음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진해해양공원을 처음 방문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다는 기대감과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설렘 덕분에 출발 전부터 분위기가 밝고 즐거웠다.

당일 진해해양공원은 맑은 날씨와 시원한 바다 풍경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다. 현장에는 집게와 쓰레기봉투 등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음료도 제공되어 참가자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특히 현장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과 단체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휴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우리 회사도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공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울 쓰레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안가 주변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발견되었

다. 특히 낚시객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와 바다를 통해 떠밀려온 폐기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일부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장소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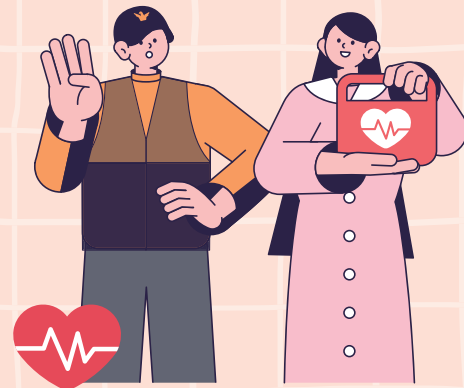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은 실천이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평소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또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평소 업무 환경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소통과 유대감도 경험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직원들과 소감을 나누어 보니 모두가 생각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진해해양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응급상황 대응력 높인다... 파크골프 초보자 안전교육 운영

이론·실습·응급처치 교육으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우리 공단은 파크골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파크골프 초보자 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본 경기 규칙과 안전수칙, 에티켓 교육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익히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이용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 예방부터 대응체계 점검까지... 체육시설 특별 소방 안전점검 실시

우리 공단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영장과 체육관, 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설비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대피 동선, 화재 취약구역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인 인증으로 한 단계 도약”

대산면파크골프장,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 획득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대산면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을 획득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대산면파크골프장은 총 36홀 규모를 갖춘 창원의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최근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시설 기준과 코스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 공인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공식 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설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공단은 지난 4월 17일 공인인증 헌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파크골프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증 획득의 의미를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객들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산면파크골프장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생활체육 명소로 자리매김

대산면파크골프장은 낙동강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코스를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우리 공단은 공인인증 획득을 계기로 초보자 안전교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도 넓혀갈 예정이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인인증은 대산면파크골프장이 시민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스메이커(YOUTH MAKER), AI로 만드는 따뜻한 변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아동인권·생명나눔 실천 프로젝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과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스메이커(YOUTH MAKER)」 아동인권 및 생명나눔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아동인권 존중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청소년 참여형 사회실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실천가로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청소년들은 AI를 활용해 아동인권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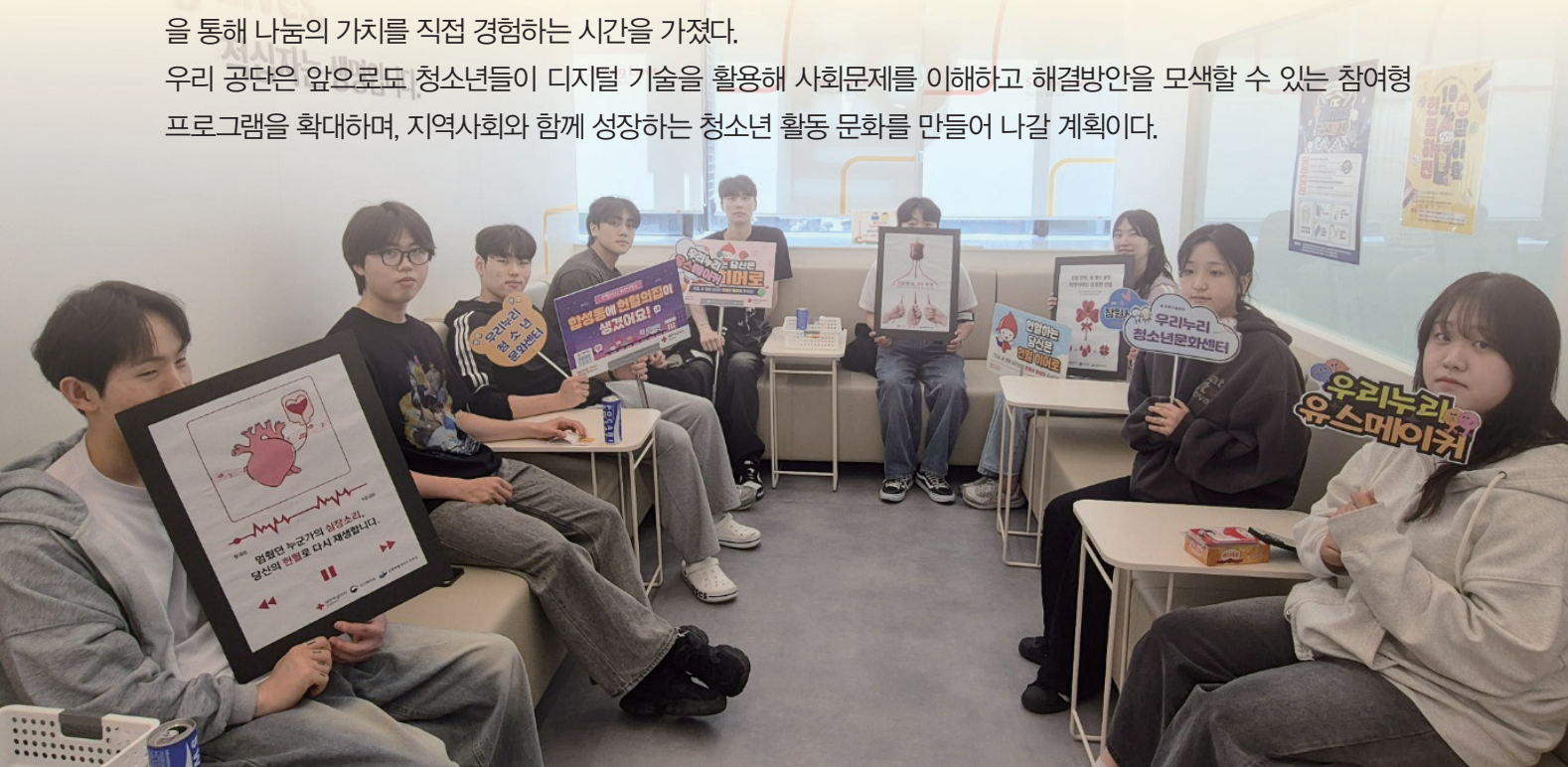
또한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참여 경험을 쌓았다. 청소년들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생명나눔 실천으로 이어진 사회참여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은 생명나눔 가치 확산이다. 청소년들은 경남헌혈봉사회 및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헌혈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의 필요성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실천 중심의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활동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

우리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이하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참여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직접 움직이고 실천하는 경험 속에서,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치기구 동아리인 변화를 만드는 한 걸음 - ‘유스메이커’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생명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4월 25일, 생명나눔 캠페인과 함께 직접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헌혈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막상 실천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헌혈을 했고, 모두 긴장했지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 서로를 보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6일에는 경남헌혈봉사회와 연계하여 헌혈의 집 마산센터 근처 합성동 일대에서 다시 한번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분들께 직접 홍보물을 전달하고 뽑기 이벤트를 하며 헌혈의 중요성을 알렸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헌혈과 봉사를 이어가는 봉사동아리 분들을 보며 진심 어린 실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민분들께서 “좋은 활동 응원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보기 좋다”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회장’이라는 역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이어가며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끄는 모습보다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직접 참여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명나눔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활동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실천이 또 다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참여하고 실천해나가고 싶습니다.



기술로 전한 따뜻한 나눔...

엔지니어청솔봉사대, 지역사회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우리 공단 엔지니어청솔봉사대가 지역 내 복지시설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엔지니어청솔봉사대는 전기·기계·시설관리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기술봉사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직접 찾아 나서며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기·설비 점검부터 생활환경 개선까지

최근 실시한 봉사활동에서는 복지시설 내 노후 전기설비와 시설물을 점검하고, 전등 교체와 소규모 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평소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기술을 활용해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단순 환경정비에 그치지 않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해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설 관계자들 역시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문성을 나누는 공단형 사회공헌

엔지니어청솔봉사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직원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전문 역량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직접 찾아 나서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서민경(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팀)



『불편한 편의점』을 읽으며 가장 오래 남은 생각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한다. 작품 속 인물들 역시 처음에는 독고를 그렇게 바라본다. 험상궂은 인상에 말도 더듬고 노숙 생활을 하던 독고는 섣뚱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이 작품은 편의점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편의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쉼터가 된다. 작품 속 편의점은 단순한 소비의 장소를 넘어 서로 다른 삶이 만나고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독고는 과거의 잘못으로 가족과 멀어지고 삶의 바닥까지 경험한 불완전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독고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조금씩 변화해 간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고의 배려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필요한 순간 작은 행동을 건넨다. 선숙에게는 아들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시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며, 경만에게는 딸들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조언을 건넨다. 독고의 말은 거창하지 않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헤아린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말들이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책을 덮고 나서 나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나 또한 일을 하면서 동료나 고객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뒤에 있을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름철 꼭 알아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수영장과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놀이는 더위를 식히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체력과 수영 능력을 과신할 때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실천 방법

- 1. 입수 전 준비운동 하기**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스트레칭 등 가벼운 준비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입수는 근육 경련이나 심장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 2. 자신의 수영 능력에 맞게 즐기기** : 깊은 물이나 위험지역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과 수영 실력에 맞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3.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하기** : 해양레포츠나 수상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요원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 4.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잠깐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 5.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기** :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구조하려 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전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더욱 커진다. 작은 안전수칙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올여름에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으로 가족과 친구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물놀이 문화를 만들어 보자.

대표적인 사고 원인

1.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입수
2. 음주 후 물놀이
3. 무리한 수영 및 다이빙
4. 안전구역 이탈
5. 어린이 보호 소홀
6. 기상 상황 및 수심 확인 부족

물놀이 전후, 무엇을 먹어야 할까?

여름철 건강과 입맛을 챙기는 음식 이야기

무더운 여름철, 수영장과 해수욕장, 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물놀이를 오래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물놀이 전후에 먹기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자.

물놀이 전에는 수분 보충이 먼저

물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몸속 수분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박, 참외, 오이와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근육 경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물놀이 후에는 단백질과 영양 보충

물놀이 후에는 체력 회복을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여름 음식인 물회는 생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콩국수는 식물성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여름철 건강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나친 냉음식은 주의하세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물놀이 직후에는 몸의 체온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냉음식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적당한 양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비결이다.

건강한 먹거리가 즐거운 여름을 만든다

물놀이의 즐거움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 더욱 커진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올여름에는 몸에 좋은 음식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보자.

NEWS LIFE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 제10대 집행부 출범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은 제10대 집행부 출범 및 이성우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새 집행부는 조합원 권익 증진과 상생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진해여좌국민체육센터-누리봄다문화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진해여좌국민체육센터는 누리봄다문화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체육활동 지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감계복지센터-북면119안전센터 업무협약

감계복지센터는 북면119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응급상황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창원국제사격장·해양시설팀-창원그랜드시티호텔 업무협약

창원국제사격장과 해양시설팀은 창원그랜드시티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시설은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NEWS LIFE



의창스포츠클럽-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업무협약

의창스포츠클럽은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산해양레포츠센터, 돌섬 연계 해양레포츠 체험 운영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돌섬 왕복 도선과 크루저 요트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레저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산합포스포츠클럽 디지털 안내서비스 운영

마산합포스포츠클럽은 디지털 기반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양시설 관심고객 초청 간담회 개최

해양시설팀은 관심고객 초청 간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객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함께하는 나눔, 공단의 약속

창원시설공단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이웃이 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생명 나눔 헌혈, 사랑의 김장, 아동센터 후원, 엔지니어청솔봉사대 활동 등 마음을 담은 사회공헌을 펼치며 모두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팀, 바다마을도서관 찾아 나눔 실천

교통사업팀은 지난 18일 진해 바다마을도서관을 찾아가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교통편의팀 엔지니어청솔봉사대,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비 봉사활동 참여

교통편의팀은 지난 30일 진해웅동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환경정비 기술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엔지니어청솔봉사대와 함께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과 아동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내서스포츠크센터, 아동권리증진·출산장려 캠페인 실시

내서스포츠크센터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권리증진 및 출산장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생활체육관, 어르신 체력측정·운동상담 지원

시민생활체육관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운동상담을 실시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했다.



진동종합복지관, '정(情)다운 하루' 행사 운영

진동종합복지관은 지역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情)다운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건강상담과 중독예방 캠페인, 노래방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성산스포츠크센터,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운영

성산스포츠크센터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아동권리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아동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사시설팀·진해청소년야영장, 어르신 급식소 배식봉사 실시

장사시설팀과 진해청소년야영장은 사파복지회관 및 진해서부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함께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갔다.



창원축구센터, 어버이날 맞이 노인복지관 행사 지원

창원축구센터는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과 안내를 지원했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 상생에 동참했다.



시민분들의 따뜻한 칭찬 한 마디가 직원들의 노력을 북돋우고, 창원시설공단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창원실내수영장 김정남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회원입니다. 김정남 강사님께서 각 영법의 기본기와 자세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며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강습해 주십니다. 특히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고, 동작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영을 더욱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을 꼼꼼히 살피며 맞춤형 피드백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강사님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력뿐만 아니라 수영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도 함께 얻었습니다. 시설 휴장으로 잠시 뵙지 못하게 되어 아쉽지만, 그동안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김정남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신애

Good

늘푸른전당 남지에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전당 「봄봄봄 페스타」를 기획해 주신 남지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은 늘 새로운 체험활동을 기대하며 어디에 갈지 먼저 묻곤 합니다. 이번 「봄봄봄 페스타」는 즐길거리와 먹거리, 다양한 체험활동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남지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의창스포츠클럽 김찬욱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빙상장을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김찬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업에서는 기초와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셔서 동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잘되지 않는 부분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도 먼저 다가와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양한 기술을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빙상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우

마산해양레포츠스쿨 이세미 강사님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서 당기요트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교육 신청 과정에서 인원 변동과 일정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고, 취소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았는데도 이세미 강사님께서 늘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함께한 일행들도 불편함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당일에는 이론부터 실습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고, 바다 위에서는 목이 설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열정 덕분에 요트를 더욱 재미있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당기요트 교육에 자주 참여하고 주변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득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훌륭한 수영 강사님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오전 10시 중급반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백정필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수영을 배워왔지만 현재 강습을 맡고 계신 선생님처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 수업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동작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 내내 회원들에게 집중하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질문에도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서 수영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좋은 강사님을 만나 수영장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정필

마산합포스포츠클럽 새벽을 여는 박선아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산합포스포츠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박선아 강사님은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만난 선생님입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깨 상태를 바로 알아차리실 만큼 세심하게 회원들을 살펴주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는 다른 반에서 강습을 받고 있지만, 매일 아침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좋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회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지켜보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지도하시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강습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새벽 시간 누구보다 먼저 수영장을 밝게 열어주시고, 늘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해 주시는 박선아 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습 준비와 지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좋은 수업으로 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황성해

진해여좌국민체육센터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해주신 권영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해여좌국민체육센터 권영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오래 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권영경 선생님과 함께 PT를 시작하면서 운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힘들게 운동시키기보다 제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왜 이 운동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덕분에 운동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세를 세심하게 교정해 주시고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봐 주셔서 더 열심히 기를 만들어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운동할 때마다 좋은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영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서연

내서스포츠클럽 아쿠아로빅(화,목) 김양희 선생님 덕분에!!!!

안녕하세요. 아쿠아로빅 화·목반을 수강하고 있는 하필근 회원의 딸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신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지루하다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 없이 즐겁게 수업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며, 김양희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직접 수업을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께서 늘 즐겁게 수업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며 선생님의 밝은 에너지와 즐거움 수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좋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곤 하십니다. 오랜 시간 회원들과 함께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김양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래도록 어머니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필근 회원의 딸

2026.06. June

건강 + 행복

시민중심 공기업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514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번지 tel. (055)712-0114
www.cwsisul.or.kr